

우등으로 합격하기 위해서는 너희의 계좌에 모든 보물들을 축적해서 완전해져라.

오늘 밥다다는 어떤 집회를 보고 있느냐? 오늘의 집회에서, 너희 자녀들은 하나 하나가 모든 불멸의 보물들 중에서 가장 높고 부유한 보물이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부자라 해도, 그들은 단 한 생 동안만 부자이다. 그들이 다른 한 생에서 부자일지 아닐지는 확실하지가 않다. 비록 그들이 세계에서 가장 부자라 해도 그것은 그저 단 한 생뿐인 반면에 너희들은, 믿음과 도취감을 가지고, 너희가 지금 모든 불멸의 보물들로 채워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생에 걸쳐서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부자라고 말한다. 너희들은 모두 지금 이때의 하루의 노력으로 굉장히 많은 소득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안다. 너희들은 너희가 하루에 얼마를 벌 수 있는지를 아느냐? 너희는 이 계좌를 아느냐? 너희는 발 한 걸음마다 수백만을 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말도 역시 기억되어 왔다. 그러므로 너희는 아버지와 그분의 지식을 알고 아버지를 기억함으로써 하루에 내딛는 발걸음 하나 하나에 수백만을 축적할 수 있다. 따라서 너희가 기억의 발걸음을 얼마나 내딛든, 그것의 수백만 배가 축적된다. 그런 소득을 벌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이 있느냐, 아니면 어느 누가 그런 계좌에 이런 보물들을 축적할 수 있느냐? 다른 사람들이 있느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보아라! 너희들 외에는 어느 누구도 그렇게 많이 축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 그래서 바바가 “신에 의해서 그렇게 고귀하게 만들어졌으니, 이제 너희 행운의 고귀한 자각 속에 머물러라”라고 말한다.

너희들은 너희의 보물들을 아느냐? 너희는 현재의 너희의 보물들을 알고, 이 합류시대가 얼마나 고귀한 때인가를 아느냐? 너희들은 모든 권리를 가진 이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때에 원하는 결실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아버지로부터 취할 수 있다. 너희들은 모든 권리를 받았다, 그렇지 않느냐? 너희들의 고귀한 생각들 하나 하나가 그런 보물이다! 시간도 역시 큰 보물이다. 너희의 생각들은 고귀한 보물이다! 모든 힘들도 또한 모든 보물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이다. 지식의 보석 하나 하나가 대단히 고귀한 보물이다! 각 미덕은 대단히 고귀한 보물이다! 세상 사람들도 매 순간마다 신을 기억하며 내쉴 숨 하나 하나가 가치 있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너희들 모두의 호흡은 성공의 본보기이며 낭비하지 말아야 된다. 성공에의 권리가 너희가 쉬는 숨결마다 담겨있다. 그러나 밥다다는 모든 보물들을 너희 자녀들 모두에게 똑같이 나누어주었다. 너희들에게 그런 것들이 모두 똑같이 주어졌다. 밥다다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1배를 주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10배,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100배를 주지 않는다. 너희 자녀들에게 모든 보물들을 주는 공여자는 너희가 브라민이 되자마자 그 보물들을 똑같이 준다. 그러나 너희가 그 보물들을 얼마나 축적하고 얼마나 낭비하는지는 너희에게 달려있다. 너희들 각자가 매일 얼마를 축적하고 얼마를 낭비하는지를 체크해야 한다. 너희들을 이것을 체크하느냐? 너희들은 틀림없이 이것을 체크해야 한다. 왜냐? 왜냐하면 이것은 단지 한 생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생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여러 생을 위해 축적할 필요가 있다. 너희들은 축적하는 방법을 아느냐? 그것은 매우 쉽다. 그저 계속해서 영(0)을 더해라. 너희가 점(영)을 기억할 때 축적이 된다. 물질적인 부에 있어서, 너희가 계속해서 숫자 “1” 다음에 영(0)을 붙이면 액수가 계속 커진다. 그와 마찬가지로, 각 영혼이 점인 것처럼 아버지도 역시 점이고, 따라서 지나간 드라마도 역시 완전한 종지부인데, 그것도 또한 점이다. 너희가 점(영)을 의식하며 모든 보물을 기억하면 너희의 보물을 낭비하는 것을 멈추고 축적하기 시작한다. 너희들은 이런 경험을 했다, 그렇지 않느냐? 너희가 점(완전한 종지부)을 찍자마자, 너희 보물의 낭비가 멈추고 그것들이 축적되지 시작한다. 너희들은 완전한 종지부를 찍을 줄 아느냐? 때때로 너희가 종지부를 찍으려 하는데, 종지부를 찍는 대신에 긴 줄을 긋는다; 종지부를 찍는 대신에 의문부호가 되고, 감탄부호가 된다. 너희의 잔고를 축적하는 방법은 완전한 종지부를 찍는 것이며, 너희의 잔고를 소모시키는 길은 긴 줄이나 의문부호 또는 감탄부호를 긋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것이 더 쉬우냐? 완전한 종지부를 찍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방법은 매우 쉽다. 너희는 그저 자기존중심을 갖고 아버지를 기억해야 되고, 무엇이든 낭비적인 것에는 완전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밥다다는 앞서 너희에게 매일 암릿 벨라에서 이 세 가지 점을 자각하는 틸락을 너희 자신에게 붙여주라고, 그러면 너희의 보물들이 하나도 낭비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너희의 모든 보물들이 매 순간 계속해서 축적 될 것이다. 밥다다는 너희 자녀들 모두의 모든 보물을 보기 위해 차트를 보았다. 바바가 무엇을 보았겠느냐? 지금까지 너희들의 계좌는 있어야 할 만큼의 축적이 되어있지 않다. 너희들의 시간과 생각과 말이 낭비되고 있다. 너희들이 움직이고 걸어 다니는 동안, 이 때의 중요성이 너희의

의식에 떠올라야 할 만큼 떠오르지 않았다. 시간의 중요성이 너희의 기억에 끊임없이 떠오르면, 너희는 시간을 훨씬 더 가치 있게 쓸 수 있을 것이다. 너희들은 하루 온 종일의 시간을 평범하게 보내고 있다. 너희들은 시간을 잘못 쓰는 것이 아니라 평범하게 쓰고 있다.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하는 생각들도 나쁜 것이 아니라 낭비적인 것이다. 한 시간 동안 스스로 체크를 해 보아라. 너희는 매 시간마다 얼마 동안을 평범하게 보내느냐? 평범한 생각을 얼마나 하느냐? 그럴 때에 너희는 아무 것도 축적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밥다다가 너희에게 계속 신호를 보낼 때, 너희는 밥다다를 확신시키려고 대단히 많이 노력한다. 너희들은 이렇게 말한다: “바바, 저는 단지 이 몇 가지 생각만을 했지, 더 이상은 안 해요! 저는 그저 이것 등에 관해서 몇 가지 생각만 했어요. 저는 완전해질 거예요. 저는 꽤 괜찮아질 거예요. 아직은 끝이 아니고 시간이 좀 남아있어요. 그러니 저는 그 때가 되면 완전해질 거예요.” 그러나 밥다다는 거듭해서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오랜 기간 동안 축적해야 된다고 말해왔다. 너희들은 “끝에 가면 나의 축적 잔고가 가득 찰 거예요. 나는 그 때가 오면 그렇게 될 거예요.” 라고 말한다. 너희가 오랜 기간에 걸쳐서 뭔가를 축적해야만 그것이 오랜 기간 지속될 것이다. 너희들은 어떤 유산을 차지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으면 모두가 락쉬미나 나라얀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만일 바바가 너희에게 은시대의 뭔가가 되고 싶은 사람은 손을 들고라 한다면 아무도 손을 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바바가 너희에게 락쉬미나 나라얀이 되고 싶으냐고 물으면 모두가 손을 든다. 너희가 이 보물들의 잔고를 오랫동안 쌓아왔다면 너희는 완전한 유산을 받는다. 만일 너희가 단지 몇 가지의 보물만을 축적했다면, 어떻게 완전한 유산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너희들은 모든 보물들을 가능한 한 많이 축적해야 한다. “저절로 될 거예요, 그것들이 올 거예요” 라고 말하며 미래로 넘기지 말아라. 너희들은 그것을 지금 해야만 한다! 이것이 결의다. 너희가 암릿 벨라에 좋은 단계에서 기억 속에 앉아있을 때에는, 여러 가지 이러 저러한 것들을 하겠다고 마음속으로부터 약속을 한다. 너희들은 자기가 기적을 보여줄 것이라 말한다. 그것은 좋다! 적어도 너희들은 고귀한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나 밥다다가 말한다: 이제 너희가 약속한 모든 것을 실행에 옮겨라! 그저 약속만 하지 말고 너희가 한 약속이 무엇이든 그것을 실행에 옮겨라!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좋은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럴 때에 밥다다는 너희를 보며 기쁘다. 왜냐하면 적어도 너희가 이것을 하겠다 또는 이것이 되겠다고 말하며 용기를 잃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의 용기가 매우 좋기 때문에 밥다다는 그것을 보고 기쁘다. 그러나 어떤 것을 실행에 옮기는 일에 있어서는 단지 때때로 실행에 옮겨질 뿐이다. 약속을 하기는 매우 쉽다, 그러나 너희의 약속을 이행한다는 것은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을 의미한다. 약속을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 약속을 실행하는 것은 등수대로 된다. 너희가 실행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과 같게 만들어라! 너희의 실천을 계획과 동일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사업가들이 오늘 여기에 왔다. 너희 사업가들은 사업하는 법을 안다. 너희들은 부를 어떻게 축적하는지를 안다, 그렇지 않느냐? 엔지니어와 과학자들도 역시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한다. 그리고 밥다다는 시골(rural)지역에서 온 사람들을 통치자(ruler)라고 부르는데, 왜냐하면 너희가 그 봉사를 하지 않았다면 아무도 이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곳에 온 세 부류의 사람들 모두가 모든 것을 실행에 옮긴다.

너희들은 그저 말만 하는 이들이 아니라 실제로 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행하는 이들이다. 따라서 너희 모든 영혼들은 그 약속들을 실제로 실천에 옮김으로써 자기의 약속을 이행한다, 그렇지 않느냐? 아니면 너희는 그저 약속만 하는 이들이냐? 약속을 할 때에 너희는 밥다다에게 용기를 보여줌으로써 밥다다를 기쁘게 한다. 밥다다는 각 자녀가 한 약속의 파일을 가지고 있다. 저 위에 너희의 약속 파일을 간직할 찬장이나 장소가 없는 것이 아니다. 밥다다는 때때로 갑자기 그의 알로키 텔레비전을 켜다. 밥다다는 그것을 항상 켜놓지는 않는다! 밥다다는 때때로 텔레비전을 켜서 모든 것을 들을 수 있다. 밥다다는 또한 너희들끼리 하는 이야기를 무엇이든 듣는다. 이런 이유로 밥다다가, “낭비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그 계좌에 축적해라”라고 이르는 것이다.

브라민이 된다는 것은 알로키한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브라민 삶의 중요성은 대단히 크다. 너희들은 많은 훌륭한 결실을 얻었다. 너희들이 갖고 있는 자기 존중심은 매우 고귀한 것이다. 합류시대에 아버지에게 속한다는 것은 수백만 배의 가장 큰 행운이다. 그렇기 때문에 밥다다는 너희에게 너희 각자의 보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강의를 할 때에는 합

류시대를 대단히 칭송하는 말을 한다. 어떤 사람이 합류시대를 찬양하는 주제로 강연해달라고 너희에게 요청하면, 너희는 얼마나 오래 강연을 할 수 있느냐? 너희들은 한 시간 동안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선생들은 말해봐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손을 들어봐라! 너희들은 합류시대의 중요성을 남들에게 말한다. 너희들도 역시 이 때의 중요성을 매우 잘 안다. 밥다다는 너희가 그것의 중요성을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이에 대해 남들에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가 스스로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그런데 그것이 그저 속에 잠겨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너희의 인식이 때로는 더 크게 드러나지만, 다른 때는 덜 드러난다. 그러므로 신에 대한 너희의 도취감이 늘 곁으로 드러나 있게 해라. 너희는 “예, 저는 그렇게 됩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너희가 실질적으로 이렇다는 것이 너희의 자각 속에 들어있어야 한다. 너희들은 이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그 믿음은 영적인 도취감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너희는 끊임없이 도취감을 경험해야 한다. 너희들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영적인 도취감을 가져야 한다. 이 도취감이 너희 안에서 드러나면, 너희는 매 초마다 보물들을 계속 축적할 것이다.

이처럼 밥다다는 너희가 얼마나 축적했는지 보려고 너희들의 축적의 계좌내역을 조사했다. 밥다다는 오늘 너희들의 축적의 잔고를 보았고, 이것에 대해 너희의 각별한 주의를 상기시킨다. 시간은 갑자기 끝날 것이다. 언제 그 일이 일어날지를 너희에게 사전에 말해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때에는 모든 것이 팬츠를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시간의 도움을 받으며 시간이 모든 것을 바로 잡고, 모든 것을 제 때에 팬츠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선생은 누구이냐? 시간이나, 신 자신이나? 신 자신에 의해서 완전하게 만들어지지 못하고, 시간에 의해 완전하게 만들어진 사람에게 너희는 뭐라고 말하겠느냐? 시간이 너희들의 주인이나 아니면 신이 너희의 선생이냐? 드라마에 따라서, 만일 시간이 너희가 변화하도록 가르치거나 또는 너희가 시간을 바탕으로 해서 스스로 변화한다면, 그 때에는 시간이 너희의 주인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될 것임을 밥다다는 알고 있다. 시간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 너희가 시간을 기다려서는 안 된다. 시간은 피조물이고 너희는 창조자 주인들이다. 그러므로 너희의 피조물이 그의 창조자들을 기다려야 한다. 너희 마스터 창조자들이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 무엇이 어려우냐? 쉬운 것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너희 자신들이다. 그것은 어렵지 않지만 너희가 어렵게 만든다. 아버지는 너희가 가진 어떤 짐이라도 들어주겠다는 제의를 하고 있다. 너희는 짐을 어떻게 건네줘야 하는지를 모르느냐? 너희는 계속해서 그 짐들을 들고 있다가 피곤해지면 아버지에게 불평을 한다. 너희는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라고 한다. 왜 너희는 이 짐들을 계속 들겠다고 고집을 피우느냐? 바바는 너희들의 모든 짐들을 받아주겠다는 제의를 하고 있다. 너희들은 63생 동안 짐을 지고있는 습관이 배어서, 그 습관에 억눌림을 느끼고 그래서 너희가 애를 써야 하는 것이다. 너희는 때로는 그것이 쉽고 때로는 어렵다고 느낀다.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은 항상 쉽거나 항상 어려워야 한다. 왜 어떤 때는 쉽고 다른 때는 어려운 것이냐? 거기에는 틀림없이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다. 어떤 일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너희가 습관에 억눌린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밥다다는 그의 자녀들이 애를 써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렵다. 밥다다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마스터 전능한 권위자(master almighty authority)가 어떻게 무엇이 어렵다고 느낄 수 있겠느냐? 너희는 자기 자신에게 어떤 칭호를 주었느냐? “어려운 요기” 이냐 아니면 “쉬운 요기” 이냐? 그런 경우에는 너희의 칭호를 바꿔야 한다. 너희는 더 이상 자기가 쉬운 요기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때로는 쉬운 요기였다가 다른 때에는 어려운 요기이냐? 결국 요가가 무엇이냐? 너희가 해야 할 일은 바바를 기억하는 것 뿐이다. 너희가 강력한 요가를 하면 어떤 것도 어려울 수가 없다. 요가는 너희의 사랑의 불이다. 어떤 일이 아무리 어려워도 너희의 사랑의 불이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철조차도 불에 의해 변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의 불이 어려운 일을 쉬운 일로 바꾸지 못하겠느냐? 어떤 자녀들은 바바에게 많은 놀라운 일들을 들려준다. “바바, 분위기가 그럴 때에는 제가 어떻게 해야될까요? 제 동반자가 그럴 때는 제가 어떻게 해야될까요? 우리는 마치 백조와 황새 같아요. 이런 모든 과거의 카르마 잔고가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너희는 바바에게 그와 같은 매우 놀라운 많은 일들을 이야기한다. 그러므로 바바가 너희에게 묻는다: 너희 브라민들은 어떤 계약을 수락했느냐? 너희들은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계약을 수락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로 계약한 사람들이 어떤 일이 어렵다고 해서 변화시키지 않을 수가 있느냐?

그러니 너희들은 오늘부터 무엇을 하겠느냐? 너희들은 계속해서 저축을 늘릴 것이다. 자기가 쉬운 요기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제 자기 자신을 쉬운 요기로 경험할 것이다. 때로는 어떤 것이 쉽고 때로는 그것이 어려운 것은 즐거운 일이 못된다. 브라민의 삶은 즐거움의 삶이다. 합류시대는 즐거움의 시대이다. 합류시대는 짐을 지는 시대가 아니다. 그것은 너희의 짐을 없애는 시대이다. 그러므로 지식의 거울에 너희의 행운의 이미지를 체크해라. 그것을 아주 주의해서 검사해라. 이해하느냐? 앗차.

모든 보물들의 주인인 온 사방의 자녀들 모두에게, 무엇이든 어려운 것이 1초 이내에 끊임없이 쉬워지게 만드는 쉬운 요기들에게, 생각, 시간, 행위를 한결같이 고결하게 만드는 이들에게, 저축 계좌를 끊임없이 늘리는 이들에게, 제 마음의 주인이며 그들이 내려주는 지시에 그들의 마음, 지각, 산스카르가 순종하는 이들에게, 자아의 주인인 자녀들에게, 바바의 가슴에서 멀지 않은, 이 나라와 해외의 모든 이들에게, 온 사방의 모든 자녀들에게, 밥다다의 사랑과 기억과 나마스테.

**축 복:** 심지어 미묘한 생각의 굴레에서조차, 굴레로부터 자유로워져서 높은 단계를 경험해라.

너희 자녀들은 굴레로부터 자유로운 정도만큼 높은 단계에 안정해 머물 수 있다. 따라서 “내가 생각이나 말, 행위에서 미묘한 방식으로라도 여전히 뭔가에 끈으로 연결되어 있거나 않은지” 체크해 봐라. 아버지 한 분 외에는 어느 누구도 기억나지 않게 해라. 만일 너희의 몸이라도 기억한다면 그 다음엔 몸과 더불어 육신의 관계들, 소유물, 세상까지 모두 차례차례 뒤따를 것이다. 너희 의식 속에 “나는 굴레로부터 자유롭다”라는 축복을 간직하고 세상 전체를 마야의 덮에서 해방시키는 봉사를 해라.

**슬로건:** 영혼의식의 단계로 몸과 마음의 격동을 끝내는 자들은 흔들림 없이 머문다.

\*\*\* 음 샐티 O M S H A N T I \*\*\*